

나의 목회와 로잔 언약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한국인터서브선교회 이사장)

54년생인 나는 27세 되던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신학생이었다. 25세까지만 해도 니체, 도스토예프스키, 키에르케고르 등의 책을 끼고 지독한 실존적 문제로 하나님과 씨름하던 나는 27세를 기점으로 역사적 문제를 놓고 신앙적, 신학적 고뇌를 시작했다. 보수교단에 속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개혁사상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신학적 통찰을 통합해 나가고 있던 나는 갑자기 어느 날부터 한반도와 남미 등 제3세계의 현실에 촉발된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선교학 석사 과정 중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서해석학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 후 김세운 박사가 지도하는 신약학 석사과정에서 총체적 성서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철학과 역사학, 사회학을 통합한 해석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성경의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구속사적 성서해석과 통합하는 나름의 총체적 성경 신학을 수립하느라 나의 젊은 날은 고뇌와 열정으로 들떠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행동하는 신학(Doing Theology)'에 매료되었고 이것을 나의 평생의 목회 철학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신학적 이슈는 먼저 인간의 현실(Context)에서 출발해야 하고 이 질문을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응답받아 실천해야 한다는 확신이 내면화 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나의 신앙은 관념의 장벽을 벗어나 현실의 바닥



로 출애굽했고 나의 신학은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익어가기 시작했다.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성경해석학이 지나치게 사회학적 성서해석으로 귀결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복음주의 진영의 제3세계 출신 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때 만난 사람들이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E. Costas), 르네 빠디아아(Rene Padilla) 등 이른바 로잔 운동의 급진적 제자도 그룹에 속한 학자들이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하비 콘(Harvie M. Conn)이나 로저 그린웨이(Roger S. Greenway) 같은 선교 신학자들의 글도 이때 만났다. 물론 존 스토틀(John Stott)와 자크 엘룰(Jacques Ellul)의 책들은 기본적인 교과서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나는 로잔 신학과 더 자주, 깊이 조우하게 되었고 로잔운동이 나의 목회와 선교 실천 속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

강도사 시절인 1989년 나는 구로동에 교회를 개척했다. 구로희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교회는 당시 동아시아 산업사회의 모순이 깊이 스며든 구로공단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선포하고 살아내려는 한 젊은 목회자의 꿈과 열정이 빚어낸 공동체였다. 이미 개척 전에 후배 청년들과 함께 야학과 노동자 탁아소에 가리봉동에 세우고 당시 공장 활동을 하던 대학생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나는 독일 유학 대신 구로공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나는 서울 외곽의 어느 교회 수요 집회에서 한 여자 선교사의 간증을 듣게 되었고 깊은 감동과 함께 삶의 방향에 대한 결단을 내렸다. 군부독재와 수탈적 경제 구조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 소위 시혜적 참여를 하며 사회 선교운동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던 나는 좀 더 중심부로 한 발자국 내딛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다시스로 가려는 요나처럼 느껴졌고, 니느웨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나에게 구로공단은 군사적 억압과 수탈이 깊이 드리워진 니느웨였고, 어두움이 깃든 갈릴리 북부 납달리 스텝론 땅이었다. 깊은 신앙적 감화와 감동 가운데 나는

구로공단 가리봉동 지역으로 집을 옮겼고, 당시 칠십 노모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 당시 봉제공장이 있던 4층 20평을 월세로 얻고 이만열 교수님이 써준 구로희년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바로 오늘의 희년선교회의 기초이다.

희년선교회는 로잔 정신을 가지고 대도시 선교(Urban Mission)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주요 대상은 한국산업공단에 노동자로 들어온 제3세계 사람들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주로 터키와 서북 아프리카의 노동자들이 EU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으로 이주, 불법체류 노동자가 되었다. 불법체류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불법을 저질렀을 뿐이므로, ILO 가입 국가로서 이들의 인권이나 노동3권 등 나머지 부분은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었다. 희년선교회는 이 제3세계 출신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나그네를 선대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처음부터 로잔의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사역하였으며, 복음 전도와 사회정의를 총체적으로 구현하는 선교전략을 실행하였다. 특히 이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대안으로 사설 의료보험조합(희년의료공제회)을 설립하여 기독교적 인도주의를 실천하였다. 현재 희년의료공제회에는 2013년 말 기준 68개 국가, 누적회원 약 14,728명(실제 활동 회원 2,500명~3,000명 사이)으로 구성된 국제적 의료보험조합이다. 매주 무료진료를 통해 1차 진료를 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조합에 속한 협력병원에 보내어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 기독교 공동체가 각 민족별로 세워졌는데, 현재 총 7개의 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y,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CIS-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고려인/ 쿠르드-이

란, 이라크, 터키)가 매주 예배와 성경공부, 식탁공동체로 모이고 있다. 이 희년선교회를 통해 느낀 보람과 감동은 큰 수술을 받고 고국으로 귀환한 형제가 쓴 편지 한 구절이 대변한다. “목사님! 한국에 돈 벌려고 왔지만 돈보다 더 큰 것, 예수님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창립 20주년을 맞아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1997년 산본 지역에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다. 두 번째 교회의 목회 철학은 ‘샬롬 목회(Shalom Ministry)’였다. 희년선교회 사역과 3년 반의 남북나눔운동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가치는 바로 샬롬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잔신학이 ‘균형잡힌 기독교(The Balanced Christianity)’에서 ‘총체적 기독교(The Wholistic Christianity)’로 발전한 것처럼 나의 목회 철학도 점차 총체적 목회(The Wholistic Ministry)로 성숙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선교 개념이 통합된 목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다스림)의 결과는 샬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샬롬 공동체(The Shalom Community)’이다. 온 세상이 이기심과 이념과 인종과 종파와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쟁과 테러와 전쟁으로 가득차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대안적 공동체(The Alternative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대안은 한마디로 샬롬이다. 그래서 산울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것을 첫 번째 전략으로 삼았다. 당시 군포시에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었다. 제일 먼저 군포경실련을 창립하는 일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공동대표까지 맡았다. 지역 시민단체 운동가들과 교체하면서 산울교회가 어떻게 지역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교육관을 개방하고 지역 시민단체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또 지하식당을 열어 지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소위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사역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산울교회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동체, 지역사회에 열린 공동체, 지역 시민 사회와 깊은 연대성을 확보한 공동체로 각인되었다. 지역 시민사회는 대부분의 시민교육강좌와 세미나를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진행하였고 세미나 중 식사 문제도 교회 식당에서 해결하였다. 이렇게 하여 점차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여성민우회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여 선교적 협업까지 하게 되었다. 특히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였다. 교회가 로잔 언약에 기초한 총체적 선교 개념을 가지고 사회선교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사회선교사는 군포여성민우회와 협력하여 한부모가정에 집을 제공하고 공동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룹홈 사업’을 전개하여 10여 가정에 주택을 제공하고 생활대책을 공동모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정을 돕는 지역 NGO를 구성하게 되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성경의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울교회 권사들이 군포여성민우회의 대표가 되기도 하는 등,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여성 지도자로 건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대안공동체로서 산울교회는 단순히 지역사회에서의 샬롬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남북분단과 동서분열, 극단적인 이념대립으로 사회적 갈등과 증오가 증폭되는 남한사회에서 교회는 평화의 영성으로 갈라지고 분열된 것들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대안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산울교회는 창립 이후 지난 17년 동안 매년 6월을 ‘민족 화해의 달’로 선포하고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헌금은 물론 21일 동안 온 교인이 릴레이 금식기도(다니엘 세이레기도)를 하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의 영성을 함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산울교회는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침몰 같은 극단적인 남북의 군사적 대립 상황 속에서도 원수 사랑의 아가페 영성을 가

지고 한결같이 금식기도하며 북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성숙한 평화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살림목회의 모든 정신과 신학의 뿌리는 로잔 운동이다. 74년 로잔 언약, 89년 마닐라 선언, 2010년 케이프타운서약으로 이어진 로잔 운동은 나의 목회에 풍부한 신학적 자양분이 되었다.

대안공동체로서 교회는 기존 교회에 또 다른 대안교회를 지향하게 한다.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질적 성숙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동반한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 성장은 인위적인 성장촉진을 강조하거나 성장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도 대형교회로의 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숫자 성장에 따라 요구되는 교회 공간의 확장과 주차장 확보가 무리한 현금 수요와 재정부실을 일으키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자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현상은 대형교회로의 성장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이다. 구로교회년교회를 통해 도시빈민목회와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경험하고, 군포산울교회를 통해 중산층 주거지역의 대안교회 모델을 모색하게 된 후 '교회를 분립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한 그루 나무보다 숲을 이루는 목회'라는 구호 아래 전교인이 월정 교회개척헌금을 작성하게 하고 이것을 기금으로 모두 3개의 교회를 분립·개척하였다.

분립교회를 세울 때마다 약 2억 원 정도의 개척기금을 지원하였고, 자원하는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회가 초기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극복하고 자립하기 시작했다. 또 위치도 비교적 모교회에 가까이 있도록 함으로써 한 지역사회에 건강한 교회들이 서로 동역하기를 꿈꾸었다.

네 번째 분립은 담임목사인 내가 직접 하기로 결심하고 17년간 목회했던 산울교회를 2013년 사임, 수원시 광교신도시지역에 광교산울교회를 개척하였다. 이런 목회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교회 분립 개척에 힘쓴 것은 로잔 정신에서 나타난 선교적 교회에 관한 개념 때문이었다. 로잔 언약은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성취와 지상 계명(The Great Commandment) 수행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천명하였는데, 이를 지역 목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교회 분립을 통한 지역 공동체적 선교 전략이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문제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교회 개척 전략이 현재도 수원시 광교지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 위안부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다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로 부름 받아 귀국하게 되었던 하비 콘(Harvie M. Conn)은 총신대학교에서 행한 고별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였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속죄하는 차원에서 동두천에서 미군 매춘부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딱 한 사람 나 자신이 회개하며 떠난다. 복음 전도만으로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복음 전도와 함께 그들의 삶을 갱생시키는 사회적 회복 프로그램 없이는 아무도 회심하지 않는다.”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이 고별설교를 통해 선교의 총체성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의식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그 후 로잔 운동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목회와 선교를 통해서 이 문제의식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문식 광교산울교회 담임목사.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일찍부터 복음주의 학생운동에 헌신하여 80년대에 '기독교문화운동연합', 90년대에는 '복음주의청년학생연합' 결성에 관여하였으며, 1991년 '복음과상황'을 창간하여 초대 편집주장과 발행인을 역임했다. 또 희년선교회, 희년의료공제회를 설립하여 외국인 노동자 선교사역에 지난 25년간 헌신하였고, 현재 '성서한국'과 '인터브코리아' 이사장 및 '(사)한국민간교류협회'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통일을 넘어 평화로』(홍성사), 『이문식의 문화읽기』(두란노)가 있다.